2026 KNN 교육혁신포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인재 정주전략

부산외국인유학생 통합지원허브 사례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국제교류처장 · Study Busan Hub | 2026. 7. 23. |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부산라이즈혁신원 · 신라대학교 · 동의과학대학교

CONTENTS

발표 순서

01	왜 지금, 유학생 정주전략인가	정책 배경과 부산의 구조적 강점
02	부산 유학생 현황과 정주 과제	18,630명 시대, 실태조사가 말하는 것
03	Study Busan Hub, 어떻게 만들어졌나	추진 경과와 현장의 모습
04	허브가 만든 변화 — 성과와 현장	상담·의료·정착지원의 구체적 실적
05	글로벌 네트워크와 취업연계 성과	태국·중앙아시아 협력, 채용박람회
06	앞으로의 계획	My Busan 플랫폼과 확장 전략

왜 지금, 유학생 정주전략인가

부산형 유학생 유치·양성 방안 (2024. 3.)

01

전공·국가 다원화

특정 국가·전공 편중 완화,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풀 확대

02

지역산업 맞춤 인재 유치

항만물류·조선해양·기계제조 등 전략산업 연계 유치

03

학업·정주생활 지원 강화

Study in Busan — 유치부터 정주까지 하나의 트랙

04

취업역량 강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취업연계형 프로그램 확대

국가 성장전략 Study Korea 300K와 맞물려, 지역소멸 위기의 부산은 유학생을 "지역 정착 인재"로 전환하는 실행 모델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교육부·KDI, 교육부

부산이 가진 구조적 강점

1 **낮은 생활비**

수도권 대비 저렴한 주거·생활 비용

2 **국제 관문도시**

김해공항·부산항 기반 접근성

3 **인구소멸 대응 정책 우선지역**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4 **도심 인접 캠퍼스**

대학과 생활권이 가까운 정주 친화 구조

전략산업 기반

- 항만물류
- 조선해양
- 기계제조
- 관광·MICE
- 금융·핀테크
- 디지털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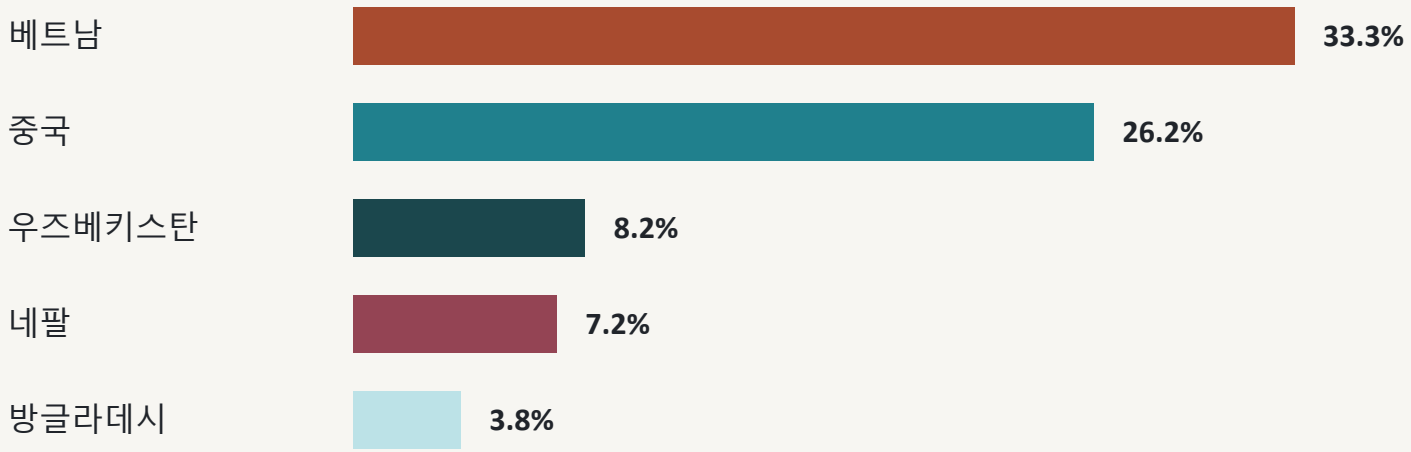
부산 유학생 18,630명 시대

18,630

명 (2025년) · 전년 대비 +24.64%

법무부 기준 약 22,000명 · 부산 체류외국인의 32%

국적별 분포



2028년 목표 3만 명 · 이공계 비중 30% · 취업비자 전환율 40%

교육부·KDI, KNN, 국제신문, 부산시

지역기업의 시선: 채용여건과 애로

13.5%

유학생 채용 경험 기업

91%

채용 만족도 (긍정 응답)

64.2%

필요 직무 — 제조·생산

채용 시 주요 애로사항

허브의 역할

비자 상담 창구와 다국어 취업연계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채용 장벽을 실제로 낮추는 것이 Study Busan Hub의 핵심 과제입니다.

유학생 실태조사가 말하는 것

부산연구원 · 400명 대상 (2025)

56.0%

졸업 후 한국 체류 의향

81.7%

체류 희망자 중 부산 체류 희망

74.1%

체류 목적 — 취업(구직 포함)

생활만족도 (5점 만점)

안전·치안

4.16점 · 만족 ↑

사회적 관계 형성

3.04점 · 개선 필요 ↓

54.8%

차별 경험 응답률

다문화 수용성 제고와 사회통합 정책이 함께 가야 함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취업지원 수요

- 한국어 교육 36.8%
- 기업 인턴십 25.0%
- 취업준비 프로그램 25.8%

부산연구원 2025 실태조사

Study Stay Busan 추진전략

01

인재양성 연계통합

유치–학업–취업–정주를 하나의 트랙으로 통합 관리

02

전략산업 연계

지역 핵심 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인재 육성

03

유학단계별 지원

입국 전–재학 중–졸업 후 전 단계 맞춤 지원

04

수요자 중심 설계

유학생·기업·대학의 목소리를 반영한 서비스 기획

슬로건

“유치에서 정주까지, 하나의 트랙으로”

허브 구축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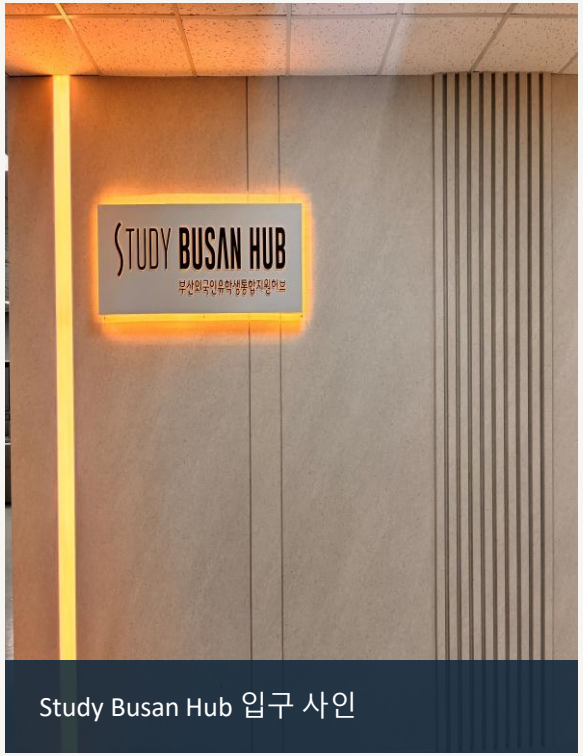
2025.8	2025.9	2025.10	2025.11	2026.1	2026.2.10
총장협의회 논의	단위과제 회의	주관대학 선정 (신라대·동의과학대)	인프라 구축	상담인력 채용	허브 개소

부산 RISE 대학총장협의회 (2025.8.29, 롯데호텔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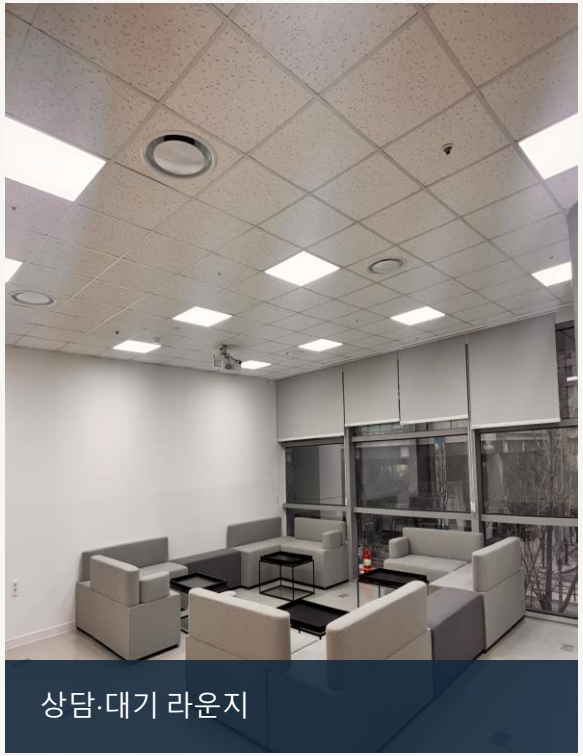
글로벌 교류센터 구축 논의 회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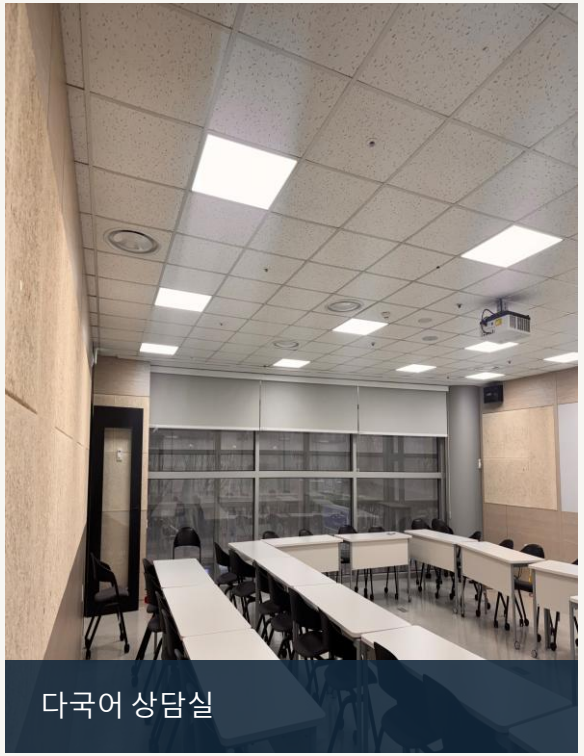
허브 현장: 유학생을 맞이하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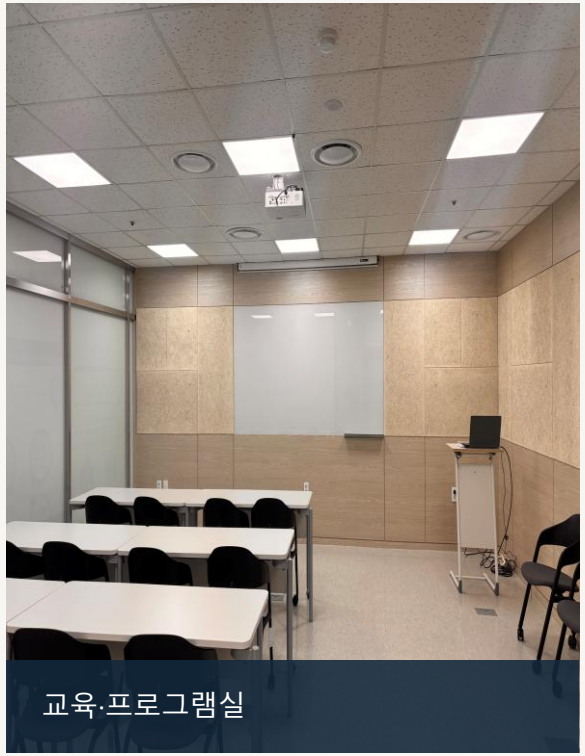
연제구 국민연금공단 2층 — 다국어 상담부터 학습·교류까지 한 공간에서



Study Busan Hub 입구 사인


상담·대기 라운지


다국어 상담실


교육·프로그램실

4대 핵심 기능: 다국어 상담 · 의료 지원 · 학습·교류 프로그램 · 취업 연계

허브의 주요사업 4대 분야

유치	학업·창업	취업	정주·커뮤니티
해외 유학박람회·교육원 협력, 현지 설명회 확대	학업 적응 프로그램,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지역기업 채용연계, 인턴십, 채용박람회 운영	생활상담, 의료지원, 웰컴패키지, 교류 프로그램

개소 5개월, 숫자로 보는 성과

2026. 2. 10. 개소 이후 (2026.7 기준)

150건+

전문 상담 실적

3개월간 6개 언어 지원

300명+

단체지문등록 지원

법무부 연계 출장등록

3개소

거점병원 지정

권역별 의료 접근성 확보

1,728명

채용박람회 참가

45개사 참여, 부울경 최대

허브 개소 이전에는 없던 “원스톱 창구”가 생겼습니다

비자·체류, 의료, 취업, 생활 상담이 흩어져 있던 이전과 달리, 유학생은 이제 한 공간에서 6개 언어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상담 실적 150건 중 절반 이상(57%)이 생활·행정 상담으로, 실제 정주 과정의 어려움을 직접 해소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은 협력: 태국한국교육원

2025.11.19 MOU 체결식 (동아대) / Study in Korea 교육박람회 준비 회의

2025.11

태국한국교육원 · 부산라이즈혁신원 MOU 체결

현지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상시 협력 채널 구축

2026.7

방콕 유학박람회 단독부스 확정

부산 대학 대표로 단독 참가하여 부산 유학의 브랜드 가치를 현지에 직접 전달합니다. 태국은 이번 협력을 통해 처음으로 부산이 개별 도시 단위로 소개되는 시장입니다.

중앙아시아로 넓히는 유치 네트워크

알마티 · 비슈케크 유학설명회

2026. 5 – 6월

11개교

부산 소재 대학 공동 참여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부산 유학생의 8.2%를 차지하는 핵심 국가입니다. 중앙아시아 권역 설명회는 개별 대학이 아닌 “부산”이라는 도시 브랜드로 접근하는 최초의 공동 유치 모델입니다.

공동 유치의 의미

- 개별 대학 홍보 대신 “Study Busan” 단일 브랜드로 현지 설명
- 허브가 공동 부스·상담 인력을 지원해 대학별 비용 절감
- 현지 학생·학부모 대상 비자·정주 정보까지 One-stop 안내
- 향후 태국·중앙아시아 협력을 동남아·기타 권역으로 확장 예정

전문 상담 서비스: 150건의 실제 사례

2026. 3 – 5월 (3개월간) · 다국어 원어민 상담사 3명 상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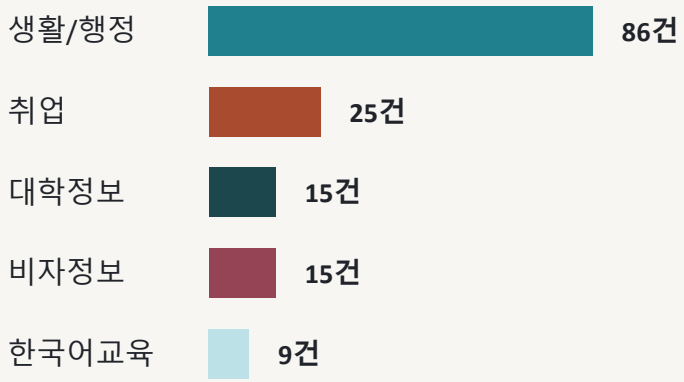
150건

총 상담 실적

6개 언어 지원
한국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우크라이나어

월별 증가: 3월 29건 → 4월 40건 → 5월 81건

상담 주제별 분포



생활·행정 상담이 전체의 57%

유학생이 실제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착”에 관한 실질적 도움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문상담 8개 분야

노무 · 체류 · 심리 · 부동산 등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연계 서비스)

상담 방법

허브 방문(대면) 또는
유선·이메일(비대면)

점진적 확대 예정

수요 증가에 따라 상담 언어와 분야를 지속 확대합니다.

거점병원 3곳, 의료 접근성을 바꾸다

업무협약 체결식 단체 기념사진

동의의료원 거점병원 현판
뉴시스

남부권	중부권	동부권
좋은강안병원	**동의의료원**	**대동병원**
2개 국어 통역	4개 국어 통역	3개 국어 통역
외국인 전용 창구 · 우선예약	외국인 전용 창구 · 우선예약	외국인 전용 창구 · 우선예약

공통 제공 혜택

- 의료보험 미가입자 진료비 10% 할인
- 종합검진·예방접종 등 각종 진료 할인
- 외국인 유학생 자원봉사단(서포터즈) 운영
- 병원별 신입생 기본검진, 재학생 할인 등 맞춤 혜택

환영의 실체: 웰컴패키지가 전하는 메시지

2026학년도 1학기 신입학 유학생 대상 · 6 essential items

패키지 구성

- 여행용 레디백 (부산 캐릭터 부기)
- 미니 보조배터리
- BUSAN 로고 수건
- 웰컴레터 & 리플렛
- 외국인 금융거래 가이드북

작은 물건이 만드는 큰 신뢰

공항에 처음 도착한 유학생에게 “부산이 나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가장 실감나게 전달하는 접점입니다. 한국어·영문 병기 가이드북은 실제 생활 정착의 첫 번째 안내서 역할을 합니다.

취업 연계 성과와 다음 단계

1,728명

2026 부울경 유학생 채용박람회
참가자 (45개사 참여)

15개사 / 15명

취업연계형 중소기업 인턴십
(2026.3-10월)

57개 언어

My Busan 플랫폼
생활정착정보 제공

앞으로의 계획

취업 기업 발굴 확대 · 한국어교육 강화 · 인턴십 확대

정주 사회통합 프로그램 · 커뮤니티 조성 · 유치전략 고도화

감사합니다

Study Busan Hub | 신라대학교 국제교류처 | mybusan.kr

부산라이즈혁신원, My Busan